

속도내는 디지털전환 중요해진 사이버보안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언론인협회(회장 성대석)가 공동 주최하는 '2021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이 열렸다.

올해 6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사이버 보안 안정성 강화' 토론회, '과학영재 장학생' 선발,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포상으로 구성됐으며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번 행사에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대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정보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 해커 출신의 두 번째 발제자 전승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고객 정보 해킹을 막지 못한 두 기업의 서로 상반된 법원 판결을 비교하며 정보보호라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우리 법제도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최광희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은 사이버보안의 환경은 사업모델과 인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C-레벨 리더십을 강조했다. 파수의 최필준 수석은 "동일한 기준의 일관된 보안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화이트 해커 출신인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창의력이 넘치고 컴퓨터를 사랑하는 윤리적 해커의 발굴과 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GSITM 정보영 전무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가이드라인의 빠른 형성을 주문했다.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영재 장학생' 선발에선 고등부에서는 고린 (서울용산국제학교), 송준형 (홍스쿨링), 이태경 (민족사관고) 3명이 선발됐다. 중등부에서는 나형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사이버 보안성 강화 대책 마련과 화이트 해커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동도중), 정승원 (대전노은중)이, 초등부에서는 서예준 (배곧해솔초), 차승우 (정주교대부설초)가 선발됐다.

국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ICT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동서발전, 씨투몬스터, 에디슨모터스는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대표의원상을 받았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NRis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데이터유니버스·티지(행정안전부 장관상) 모인·씨티씨웍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이지팜·한국아이오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아이메디신·피에이치씨(보건복지부 장관상) 교림소프트·이든티앤에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텔러스(해양수산부장관상) 블루랜드·에이직랜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가 각

부처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밖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 공동명의 부문별 대상에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스마트 혁신 6년 연속, 코스터 스마트 기술혁신 4년 연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 빅데이터와 아우름유니버스 스마트 지능형 교육서비스가 3년 연속 상을 수상했으며, 티나쓰리디 스마트 기술혁신과 에이치에너지 스마트 에너지공유 플랫폼이 2년 연속에 선정됐다. 올해 첫 수상에는 스마트 기술혁신 해피바이오테디칼, 스마트 물류 및 배송 시스템 고고엑스코리아, 스마트 의료서비스 카이팜, 스마트 팩토리 씨메스와 인이지가 뽑혔다. 스마트 플랫폼서비스 플렉스, 스마트 AI혁신 소이넷, 스마트 AR/VR 부문에선 그래픽선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백은지 기자

“파괴적 변화 전망…부작용 줄여야”

성대석 언론인협회장



한국언론인협회가 한국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과 공동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으로 형성되는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와 통합하는 기술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발전 속도가 유례없이 빠

르고 기술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모든 산업에 걸쳐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의 폭과 깊이가 모든 생산·경영·커버넌스 체계의 변혁을 요구할 정도로 커 단순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순 노동자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등 노동시장을 파괴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한국 미래 이끌 과학영재들 기대”

이상민 의원



올해로 6회째를 맞은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4차 산업혁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33개 기업의 경영자들과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과학영재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보냅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산업의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할 화이트 해커 양성하고 정부·국회·산업·학계·국민 모두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도 개선, 인식 변화, 지원 지원 등이 실현되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트 해커 양성에 관심·투자를”

서병수 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첨단 정보기술(IT)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이 우리 사회 전 부문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외부 침입에 의한 개인정보나 산업 기술 유출, 시스템 마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랙 해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핵심 인프라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이버 전쟁에서 기업을 지키는 정보보호 전문 인력인 화이트 해커 양성에 대해서도 관심과 투자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이버 보안과 화이트 해커 양성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넷에도 K방역 체계 구축”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



올해로 6회를 맞은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모색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한 각 분야 수상자

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선 사이버 안전환경을 확고히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보안성 강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사이버상에서도 K방역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가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 각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와 과학영재 장학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 Power Korea 대전 4차 산업혁명 영재 장학생		
수여기관	장학생	학교명
한국언론인협회 &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명의	고린(Koh Lynn)	서울용산국제학교
	송준형	홍스쿨링
	이태경	민족사관고등학교
	나형준	서울동도중학교
	정승원	대전노은중학교
	서예준	배곧해솔초등학교
	차승우	청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2021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수상 기업 기관		
훈격	부문	수상 기업 기관
국회 4차산업 혁명포럼 대표의원상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업리더상	한국동서발전㈜ 씨투몬스터 에디슨모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스마트레이더시스템 NRise 데이터유니버스
	행정안전부장관상	티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모인 씨티씨웍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이지팜 한국아이오티㈜
보건복지부장관상		아이메디신
		에이치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교림소프트 이든티앤에스
	해양수산부장관상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텔러스 블루루엔트 에이직랜드
한국언론인협회 &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공동명의상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혁신상	스타벅스커피코리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혁신상	코스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	국민건강보험공단***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지능형 교육서비스상	아우름유니버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혁신상	티나쓰리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에너지공유 플랫폼상	에이치에너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혁신상	해피바이오테디칼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물류/배송 시스템상	고고엑스코리아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의료서비스상		카이팜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상	씨메스
		인이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플랫폼서비스상	플렉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AI혁신상		소이넷
	4차 산업혁명 스마트 AR/VR상	그래픽선

“일상에 스며든 4차산업혁명 기술”

임채운 심사위원장

4차 산업혁명은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실험 단계를 벗어나 우리 일상 생활에 스며들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무사히 극복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정

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K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백신 접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감염병 희생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덕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없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던 시기에 산업생산이 마비되고 민생경제가 멈춰 엄청난 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4차 산업혁명 우수기업 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넘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 공헌한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발전산업 전반 디지털 전환 선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사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점이 인정돼 스마트 기업리더 부문에서 국회 4차 산업혁명포럼 대표의원상을 받았다. 특히 동서발전은 올해 스발전사 최초 직원참여형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

트 정례화 △중소·벤처기업 상생협력 얼라이언스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공동가치 창출 △신재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과 최적의 신재생 설비 운영 △전사 안전지수 확대를 통한 근로자 안전 강화 등 발전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보범 사례로 선정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협력,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4D 이미징 레이더 개발…대기업·병원과도 협업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스마트레이더시스템(대표 김용환)은 국내 최초의 고해상도 4차원(4D) 이미징 레이더 개발 전문 스타트업으로 자동차의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및 자율주행, 헬스케어, 스마트 홈·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다수의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등 국내 소부장 선두 기업이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의 레이더 제



품은 비전 센서와 달리 빛이 없는 악천후 속에서도 주변 물체를 탐지해 산업 안전 및 보안 분야에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풍부한 포인트 클라우

드를 활용해 탐지된 개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아 요양원, 독거노인 가구, 공공 화장실 등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알람을 위한 센서로 각광받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레이더 다바이스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적용해 탐지 대상자의 자세 감지, 생체리듬 확인 및 낙상사고 발생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병원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및 병원과 협업하고 있다.

ICT로 보이스피싱·개인정보유출 예방

데이터유니버스

데이터 기반 생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유니버스(대표 강원석·사진)는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문제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마트피싱보호’는 최신 주요 사기



수법 알림, 보이스피싱 의심통화 경고, 메신저피싱 예방 기능 등으로 전 해 금융사기를 예방한다. 운전자 보호 서비스 ‘오토콜’은 운전자의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차량번호만으로 차량 이동 요청을 받을 수 있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분실보호’는 휴대폰을 분실했을 때 다양한 기능을 통해 회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다.

내년에는 휴대폰 이용데이터 분석을 통한 패밀라케어 서비스를 출시해 핵가족화 이면에 발생하는 가족 돌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일조할 계획이다.

VR 플랫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모인

모인(대표 옥재운·사진)은 창사 이후 가상현실(VR) 플랫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힘을 쏟으며 VR 플랫폼 발전에 기여했다. 모인은 메타버스 열풍에 힘입어 지난 6월 폴로디 모션 슈트를 발표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해 개발자 버전을 제작 중이다.

모인에서 개발한 모션 슈트 제품은 나노 단위의 오차범위를 자랑한다. 기



존 광학 방식 구조에서 탈피해 별다른 구조물 없이도 다수의 플레이어와 함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양산형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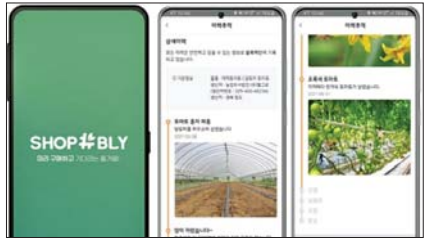
품은 단가를 최대한 낮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기업들의 본격적인 VR 콘텐츠 개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옥재운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우수 기업에 선정돼 감회가 새롭다”며 “폴로디 모션 캡처 기술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에 폴로디 모션 슈트를 상용화해 4차 산업혁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 헬스케어 플랫폼…‘농업+기술’ 온힘

이지팜

농업의 메타버스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애그테크(농업+기술) 선도 기업 이지팜(대표 진교문·사진)은 20년간 축적해온 농업 지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축산, 스마트 팜, 유통, 커머스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농업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실행해나가고 있다.

이지팜의 대표 서비스인 피그플랜은 14억 건의 빅데이터를 축적했으며,

AI·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개체별로 관리하는 돼지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산지유통 정보와 사업을 추진해 지역별 농산물을 취급하는 산자유통센터(APC), 미국종합처리장, 농산물가공센터 등 56개 거점에 입고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의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APC를 확립했다.

국내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씨메스

씨메스(대표 이성호·사진)가 100% 자체 개발한 로봇의 눈 역할을 맡는 3차원(3D) 비전 기술, 시신경 역할을 하는 비전과 로봇을 연결하는 기술, 로봇의 두뇌가 돼 경로를 자동 생성해줄 로봇 제어 기술 등



의 핵심 소프트웨어(SW)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서 로봇이 활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대기업의 양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어려운 작업 대체 등의 면에서 사용성을 입증했으며 산업용 로봇 적용 영역 확대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현대자동차, LG전자, 만도, 나이키 등 국내외의 대기업들은 씨메스의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지난 1월엔 미국 지사를 설립하고 미국 시장으로 판매 영역을 확장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배차 시스템 자동화…스마트물류 선도

고고엑스코리아

고고엑스코리아(대표 남경현·사진)는 국내를 선도하는 물류 플랫폼으로서, 쿠팡·당탈 서비스부터 기업 간선 물류 및 맞춤형 물류 솔루션까지 사업을 확장해왔다. 고고엑스만의 정보기술(IT)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물류 관리 업무의 디지털화, 배차 시스템 자동화 등 스마트물류산업을 선도해온 역량을 인정

받아 스마트물류·배송 시스템 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고고엑스는 TMS(운송관리 시스템)를 통한 배차 및 배송 현황 등 자체 IT 물류 솔루션을 개발해 주문부터 고객 관리까지 물류 단계 전 영역을 시스템화했다. 남경현 대표는 “고고엑스는 물류 노하우와 자체 운송 솔루션 등 IT 시스템이 결합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앱 ‘콰트’로 홈트레이닝 동영상 서비스

엔라이즈

엔라이즈(대표 김봉기·사진)는 빅데이터로 차별화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앱 ‘콰트(QUAT)’를 개발, 운동 강화를 기획·촬영·편집해 서비스하고 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특성상 강제성이 없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는 등 운동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동영상 플레이어로 빅데이터를 활



용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이탈 시점을 코치에게 피드백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멘트나 동작을 강화에 삽입하는 빅데이터 모델

링을 통해 사용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평균 프로그램 진행률을 끌어올리는 등 목표를 달성했다.

김봉기 대표는 “콰트는 7개 카테고리의 550개 홈트레이닝 동영상을 제작해 홈트레이닝 기구와 함께 서비스하며 사용자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모델링을 적용한다”며 “더 많은 사용자가 집에서 쉽고 재미있게 운동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 선두주자

티지

티지(대표 전원영·사진)는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스마트관광, 스마트에듀 등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컨설팅하는 기업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 여상가죽부 등 40여 개 정부기관과 기업 의정보기술(IT) 거버넌스를 구축할 정도로 기술력과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특히 세종 스마트시티 자율주행특



구 빅데이터 설계, 경기 시흥시 스마트시티 시티랩, 국가시범도시 비즈니스 모델 및 플랫폼과 세네갈 스마트시

티, 말레이시아 사바주와 코타키나발루 스마트시티, 온두라스 라세이바 스마트관광, 몽골 후레드 스마트시티학과 개설, 터키 가지안타프와 앙카라 스마트시티, 카타르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 설계 등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많은 컨설팅과 설계 실적을 쌓아왔다.

티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관광 컨설팅 및 상설 설계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스마트시티 전문기업으로 활약할 계획이다.

엔터업계 최초로 ‘가상현실 오디션’ 도입

씨티씨웍스

씨티씨웍스(대표 임태경·사진)는 2015년 공연 제작 및 기획 사업을 시작했다. 엔터테인먼트업계 최초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오디션과 해외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로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는 가운데 VR 플랫폼 개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개발, 세



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현실 속 캐릭터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확산과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비대면이 요구되는 현

실에서 VR·AR을 구현하는 기술력을 갖춰 엔터테인먼트업계뿐만 아니라 미디어산업 요구에 맞게 회사 기술을 접목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준비 중이며,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약을 진행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씨티씨웍스의 기술력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소 활동량 등 데이터 수집해 건강 관리

한국아이오티

한국아이오티(대표 박민석·사진)의 카우스케어와 카우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기술이전을 통해 저렴하게 생산한 고품질 제품이다. 카우센은 목걸이형 발정탐지기, 카우스케어는 가족용 헬스케어 제품이다. 카우스케어를 소구강



에 투여하면 체온, 활동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건강, 발정, 분만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준다. 한국아이오티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바이오인종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카우스케어를 투여한 소의 전 생애에 걸친 건강 상태를 수집해 안전성을 평가한 뒤 소비자에게 생체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통업체는 바이오인종을 받은 소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수익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는 좋은 소고기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소의 건강 이력, 사육, 판매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해 축산물 유통 안전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VR·AR 활용 ‘실감형 체육 프로그램’ 제작

그랙션

그랙션(대표 김문준·사진)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업으로 교육 및 게임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브레인뉴스포츠’는 두뇌 및 신체 활동 기반의 실감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노



인과 어린이들의 두뇌·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감형 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행정복지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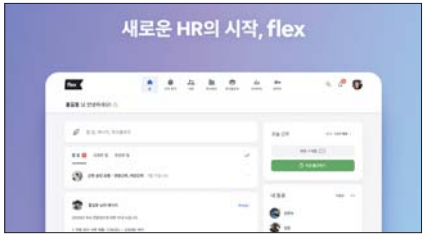
터에 생활체육시설 기반 실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올해 ‘MWU Korea Awards’에서 중학교 미래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입상하는 등 실감형 교육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랙션은 교육 현장에 실감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초·중학교와 교육청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해외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급여정산·전자결재…기업 인사관리 SW 제공

플렉스

플렉스(대표 장해남·사진)는 HR(인사관리)이 ‘human relations(인간관계)’라는 철학으로 근태 관리, 급여 정산, 전자계약, 전자결재(워크플로) 등 기업 인사관리 전반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HR 서비스형 소



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한다. 근태 관리 기능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에 대응할 수 있고, 인사이트 기능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인사관리를 할 수 있어 고객사들로부터 업무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 뒤 출시 1년6개월 만에 가입 고객사 2만2000곳을 확보했다. 지난해 8월 2000곳가량에서 1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했다. SK, 한화, 미래에셋, 카카오 등 대기업부터 유니콘 기업까지 국내 우수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AI로 뇌파 분석…치매·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예측

아이메디신

인공지능(AI) 뇌파 분석 솔루션 전문기업 아이메디신(대표 강승완·사진)은 정량 뇌파 자동분석 기술 및 AI 뇌파 잡음 제거 기술을 바탕으로 경도인지장애 감별 모델인 'iSyncBrain'을 개발해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비전문



가도 손쉽게 뇌파를 측정하고, 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건식(gel-free) 무선 뇌파 측정기 'iSyncWave'를

개발해 이달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아이메디신은 대학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치매를 비롯한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혼수상태 환자의 예후 예측, 파킨슨병, 뇌졸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까지 확대해가고 있다. 강승완 대표는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뇌 질환 연구를 통해 여러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안전 데이터 실시간 분석…화재 위험 낮춰

교림소프트

교림소프트(대표 김명희·사진)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플랫폼을 연구 개발하는 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전기안전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기안전 IoT 플랫폼'은 일반용·자가용 전기설비 시설에 IoT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무선 이동통신을 활용, 수용가의



전기안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저장·분석해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측·예방으

로 전기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교림소프트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한 딥러닝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있다. 김명희 대표는 “최근 특히 출원한 '전기 화재의 안전등급을 평가하는 시스템(CESS)'을 통해 수용가 맞춤형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화재 원인의 위험도와 고액 업종별, 건물 노후도별 등에 대한 미세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류 양식장 관리 플랫폼…수산업 인력난 해소

블루오션 영어조합법인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대표 조석현·사진)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가두리 어류 양식의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다. 어류 양식의 기본인 사료 공급 제어방법, 어류 질병 감지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유



동·판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와 AI를 기

반으로 한 양식장 관리 플랫폼 'AI fishfarmer'는 어류의 먹이 섭취 특성을 영상 기반으로 판단하는 AI를 활용해 양식장 환경 영향에 따라 어류의 활동 상태 및 어병을 조기 진단함으로써 고령화되는 수산업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폐사율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 경남 통영지역 4개 양식장에 설치됐으며, 내년에는 해양수산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목표다.

원격진료·약 배송 10만건…‘비대면 헬스케어’ 선도

블루엔트

블루엔트(대표 김성현·사진)는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통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비대면 원격 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 앱 '올라케어', 보험 심사 사전점검 솔루션 'Rx+', 국내 대표 의사 커뮤니티 '닥플' 플랫폼을 운영하는 벤처기업이다.



지난 8월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올라케어는 약 3개월 만에 누적 진료 건수 10만 건을 돌파했다. 10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4만 명, 앱 회원가입 수 2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도 냈다. 특히 앱장터에서 의료 분야 인기 앱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8월 대비 월간 진료 하루평균 건수가 9월 200%, 10월 460%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김성현 대표는 “만성질환자는 물론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의료 및 약 배송 서비스'가 새로운 의료 해결책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체 데이터로 가장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 예측

카이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벤처기업인 카이팜(대표 김완규·사진)은 자체 생산력으로 약물·전사체 빅데이터를 독점 보유해 플랫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고유한 데이터 마이닝 및 약물 가상탐색 기술로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유망한 후보물질을 예측한다. 2019년부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고 경기 성남 판교에 NGS(차세대 시퀀싱 기술) 자동화 설비를 구축했으며, 미국 유럽 일본 승인 약물 3000종을 처리한 RNA를 추출해 대규모 약물 전사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KMAP Express'를 론칭해 전문적인 전사체 프로파일링 기술을 바탕으로 후보약물의 기전을 해석하고 잠재타겟 및 부작용을 예측할 수 있다.

백화점·마트 검진부스…원격진료 서비스도 추진

피에이치씨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기업 피에이치씨(대표 최인환·사진)는 국내 최초로 개인의 맞춤형 건강관리 오프라인 플랫폼인 '스마트케어존'과 비대면 진료 솔루션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새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케어존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체험형 건강 부스로, 내방자의 검진 및 상담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분

석을 거쳐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밀키트 등을 추천해준다. 피에이치씨는 최근 이랜드와 '오프라인 스마트케어존 구축' '헬스케어 서비스 확장' '데이터 제휴'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지난해 5월 비대면 원격진료 솔루션 부문에서도 제한적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모해' 앱을 활용, 스마트 의료기와 연동해 건강관리 솔루션과 각종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AI가 단순 사무업무 처리…中소 비용절감

이든티앤에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솔루션 전문기업 이든티앤에스(대표 김연기·사진)는 근로자의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 자동화하는 인공지능(AI)OCR 기반 RPA 솔루션 '워크트로닉스'와 별도의 전산실 구축 공사가 필요없는 지능형 독



립 데이터센터 'E2D2'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든티앤에스는 SaaS 모델을 적용

한 국내 최초 RPAaaS 출시를 시작으로 RPA 도입 비용이 고민인 중소·중견기업에 경제적인 비용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한 최적의 RPA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산업군에 진출할 계획이다. 김연기 대표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기반의 '워크트로닉스'로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개발…선박 사고 줄인다

텔러스

텔러스(대표 김선간·사진)는 에릭슨LG에서 e-Call-V2X 사업을 수행하던 멤버들이 2017년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텔러스는 e-Call과 V2X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 도로교통 분야에서 검증된 서비스를 해양교통 분야에도 적용해 중소형 선박의 충돌 같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났을 신속한 대응으로 선박 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e-Call-S2X(선박 사물통신) 통합 단말기를 개발해 해양교통 e-Call 관련 국내외 표준 제정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선박 안전 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간 대표는 “해양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연산 속도 1.5배 빨라

에이직랜드

에이직랜드(대표 이종민·사진)는 자체 기술로 7·12·16·28nm 프로세스 등 난도 높은 과제를 수행하는 주문형 반도체(ASIC)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설계, DFT, 오토 P&R, 패키징, 테스트 등 전 과정을 토크 방식으로 개발한다. TSMC VCA로서



PCIe, DDR 등 하이 스피드 인터페이스(HSI) 통합·테스트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및 양산하고 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이 출시한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 데이터센터 적용 시 처리 용량을 1.5배 늘릴 수 있으면서도 가격은 절반 수준인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반도체 '사피온 X220'의 중앙처리장치(CPU) 서버 시스템, PCIe, LPDDR 등 HSI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

화학·정유·제약 공정 모니터링으로 품질 향상

인이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인공지능(AI)'이라는 뜻의 인이지(대표 최재식)는 2019년 창업 이후 국내 우수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AI 기업이다. 인이지 연구진은 선진국 뒤만 쫓는 연구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의 AI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AI 예측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내 정유·화학·발전·반도체 분야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성장혁신기업이다.

인이지는 시계열 데이터 분석 기술의 집약적 노후로 중화학공업 분야 범용 최적화 및 고장 진단이 가능한 '인피니트 옵티멀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중 화학·정유·제약 분야의 최적화 솔루션인 '인피니티 옵티멀 MES'는 생산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AI로서 이미 국내 주요 정유·화학사의 화학공정에 적용돼 제품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실현하고 있다.

전자파 차단·자동 척추교정 등 생활 의료기기 강자

해피바이오 메디칼

해피바이오메디칼(대표 김민상·사진)은 자연건강, 정도경영, 연구개발, 사회봉사를 정직하게 실천하는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기술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의료기 부문에서의 우수한 성



과를 내고 있다. 21세기 인류의 건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거쳐 탄생한 기혈 순환 의료기 '스페로이드

9000NS'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바이오 헬스케어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허가받은 특허 기능과 편리한 사용법으로 의료기업계에서 스마트한 의료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해온 해피바이오메디칼은 수많은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세라믹, 전자파 차단, 자동 척추교정, 진동 온열기 등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AI 실행 속도 높일 솔루션 개발…드론·로봇으로 확대

소이넷

소이넷(대표 김용호·사진)은 인공지능(AI) 엔진 개발 기업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사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사용 메모리를 최소화해 추론 속도를 극대화하는 솔루션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소이넷을 적용하면 인력



과 기간이 단축돼 수일~2주 안에 최적화된 상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범용 AI 모델 전반에 적용되는 인프라 기술적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소이넷은 GPU 멀티코어 기반 실행

최적화를 통한 가속 부문의 자체 핵심 기술을 보유해 AI 실행 가속을 위한 모델 설정 방법 및 시스템의 특허를 등록했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해외 특허(미국 유럽 일본) 출원도 마쳤다. 포스코, 뉴로메가 등 다수의 AI 서비스 사용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드론, 로봇, 모바일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에 IoT 접목... 전기버스 ‘강자’로

에디슨모터스



에디슨모터스(대표 강영권·사진)는 1998년 친환경 전기차 개발을 시작해 2010년 세계 최초로 전기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매년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해 신기술 확보와 품질 안정성을 높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형 저상 전기버스 ‘SMART 110’과 대형 고상 전기버



스 ‘SMART 110H’, 직행좌석 전기버스 ‘SMART 110E’를 잇따라 출시하며 전기버스 시장 확대에 힘쓰고다.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

축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 이는 전기버스의 실시간 주행 정보 및 이상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전기버스 운행의 최적 상태를 유지해준다.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시 전기버스(저상) 도입 사업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계약 1위의 성과를 이뤘다.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로 디지털뉴딜 정책 선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사진)은 올해 초부터 공공자료를 활용한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및 관련 연구·분석을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 △빅데이터 기반 특성



별 현황 분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연구·분석 등 코로나19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종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원 원주시 지역사회 중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개인 건강기록을 활용한 국민 편의 증대 방안 개발 등 신규 사업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디지털뉴딜 정책, 데이터3법 개정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보건의료 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 선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데이터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 예방·개선 위한 다양한 인지훈련 콘텐츠 제공

씨투몬스터



치매 예방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지 훈련 콘텐츠를 개발 및 서비스를 하는 씨투몬스터(대표 최진성·사진)는 ‘메타360’ ‘청춘만세’ ‘행복한 일주일’ 등 인지 훈련 콘텐츠(앱)을 개발, 노년층의 활력 증강과 치유 촉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씨투몬스터의 콘텐츠는 ‘주관적 인지 저하’ ‘경도 인지 장애’ ‘조기 치매’ 등 세 가지 인지 영역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발됐다. 서비스 전략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재미있게 훈련하도록 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보편화된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인지 훈련을 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훈련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관리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적용·분석해 보호자와 기관 관계자에게 노년층의 치매 극복을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

2025년까지 전국 모든 매장 일회용품 없앤다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대표 송호섭·사진)는 일회용품 전면 사용 중단 등을 포함한 2025년까지의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 프로젝트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스타벅스의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은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탄소 30% 감축과 재용 30% 확대를 목표로 일회용품 절감, 식물



기반 제품 및 지역 상생 제품 확대, 친환경 매장 확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 등 다섯 가지 세부 과제를 위한 탄소 30% 감축과 재용 30% 확대를 목표로 일회용품 절감, 식물

일회용 컵 없는 매장 시범운영 이후 2025년엔 전국 스타벅스 매장으로 다회용컵 이용을 확대해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도입했으며, 빨대 없이 쓰는 리드(뚜껑) 사용으로 일회용 빨대 사용량을 줄여가고 있다.

또 포장재와 용기, 포크, 스푼 등을 친환경 바이오 소재로 제작하는 등 운영 전반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가능한 안심페이 키오스크 서비스

코스터



국내 토종 핀테크 기업 코스터(대표 장인석·사진)는 결제의 간편성과 높은 보안성 등 기존 결제 방식과 차별화된 기술로 전자결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코스터에서 개발한 무인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스터는 비대면 결제 수요가 늘어

나는 가운데 모바일에서도 결제가 가능한 안심페이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특히 비대면 결제 안심페이 키오스크는 무선통신 가능 지역이면 모바일로 키오스크의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포스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와 연동돼 신용카드 없이

도 결제 가능하며 QR 생성 및 결제, 매출 집계, 문자 전송 및 관리, 고객 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장인석 대표는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위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며 “인간 중심의 스마트한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강좌 ‘AI유니버스’로 미래 융합교육 앞장

아우름유니버스



아우름유니버스는 미래 교육과 기업의 교육기부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글로벌 교육 컨설팅 그룹이다. 이 회사의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AI유니버스’의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온라인 스트리밍 강좌가 2021년 2학기 초·중·고·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수업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AI유니버스의 AI 융합교육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자기주도적으

로 자인과 사회를 위해 기술과 인공

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교육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프로젝트와 미래 인재 발굴뿐만 아니라 절대다수의 평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 개발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아우름유니버스의 교육 서비스가 일맥상통해 AI유니버스 콘텐츠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코로나 예방·대응 ‘코백플러스’ 해외언론서도 호평

티나쓰리디



정보통신기술(ICT) 3차원(3D) 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티나쓰리디(대표 배은석·사진)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대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양질의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된 ‘코백플러스’를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에서 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웹 3D, 지리정보시스템(GIS), 인공지능(AI) 자동 분석 등을 기반으로 실시간 푸시 알람 기능과 마스크 관련 기능을 적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CNN 가디언

등 해외 언론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콘셉트의 영상 콘텐츠 제작부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반응형 WEB3D, AR·VR·MR·XR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다. 배은석 대표는 “이 상을 2년 연속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혁신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공유 플랫폼 구축... 전력시장 진입장벽 제거

에이치에너지



에너지 공유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사진)는 전력회사 공급 중심에서 개방형 플랫폼 시대로 전력시장을 선도하고자 플랫폼을 적용,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로 에너지 시장의 진입장벽을 제거해 일반 소비자, 소상공인이 주류로 참여하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데이터사이언스를 기반으로 가상발전소 클라우드 플랫폼 DERshare를 구축해 다수의 분

산 자원에 대해 실시간 최적화, 통합 관리 및 입찰 등 제반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DERshare는 지난 4월부터 TOC(통합관제센터), EMS(에너지 관리 포털), OPP(개방형 에너지 연구 플랫폼)로 확장돼 서비스되고 있다.

함일한 대표는 “이달부터 경북, 울산 지역 가입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플랫폼을 통해 한전보다 훨씬 더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에디슨모터스 친환경 스마트 1톤 전기트럭

더 넓은 적재 공간과 편의 기능을 가진
뛰어난 배송능력의 SMART T1
전기트럭을 만나보세요.

